

정읍 대표음식 '단풍미락' 아시나요

지역 특산물 활용 2016년 개발 '귀리떡갈비' '쌍화차묵은지삼합' 시, 가을 단풍절 앞두고 홍보

정읍시가 가을 단풍절을 앞두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음식 '단풍미락'의 홍보에 나섰다. '단풍미락'은 지역 음식이 관광자원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문가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 고유의 감성과 향수를 담아 만든 정읍 대표 음식이다.

시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육성 과 지역 대표 음식 개발을 목표로 2016년 '귀리떡갈비'와 '쌍화차묵은지삼합' 등 2개의 음식을 개발했다.

이들 대표 음식은 정읍지역 ▲옥돌생고기 ▲삼촌 ▲내장산 명인관 ▲일송정 ▲신가네 정읍국밥 ▲정읍한우 ▲정읍 녹두장군(순천) 휴게소 ▲정읍 녹두장군(전안) 휴게소 ▲화덕갈비 정읍점·순창점 등 10개소에서 맛볼 수 있다.



귀리떡갈비



쌍화차묵은지삼합

귀리떡갈비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와 비타민 함량이 많고 노화 예방에 좋은 한돈과 한우로 만들어졌다.

다른 곡류에 비해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귀리는 특히 정읍에서 70%가 생산되고 있으며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돼 주목받기 시작했다.

쌍화차묵은지삼합은 생삼겹살을 쌍화차에 넣어 숙성한 뒤 쌍화차를 만드는 재료와 생강, 월계수, 파

뿌리, 양파, 표고 등의 재료를 넣어 만든 수육이다. 도라지구이와 묵은지 그리고 쌍화차의 그윽한 향이 입혀진 수육까지 더해져 그 함이 감탄을 자아낸다.

정읍시 관계자는 "단풍미락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단풍미락이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 정읍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정읍을 알리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자체 충당

정부,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결정 120억 투입...10% 할인율도 유지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남원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발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원시는 내년도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를 올 수준인 11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도 또한 10%를 유지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할인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민생경제 살리기 최우선이라는 최경식 남원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최 시장은 지난 13일 현안 조정회의에서 "남원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내년도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액과 할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도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원시는 올해 발행한 960억원 규모의 남원사랑상품권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안에 남원사랑상품권 10% 할인 보상액과 발행 비용 등 15억원을 편성, 140억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시 자체예산 120억원을 투입해 1100억원 규모의 남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 10%를 유지할 계획이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됐다. 판매액은 2019년 120억원, 2020년 1140억원, 2021년 860억원, 올해 743억원으로 총 판매액은 2863억원에 달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제 등 혁신안 마련

TF팀 직원 정규직화도 제안

고창군 출연기관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기존 운영 방식을 탈피해 새롭게 변화한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조직혁신 TF팀(이하 TF팀)이 '재단의 상임이사제 전환' 등 혁신안을 제시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 했다.

TF팀은 3차례의 회의를 갖고 경영평가와 재단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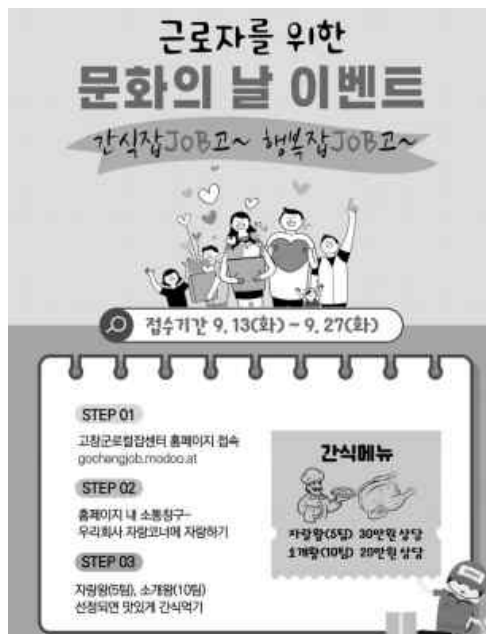
TF팀은 문제가 많았던 현행 '비상근 수석이사제'를 '상임이사제' 전환 등 혁신안을 제시했다. 또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 직원의 정규직 전환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번 TF팀에서 논의되어 도출된 혁신안은 재단의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조직혁신TF팀을 이끈 고운기 단장은 "문화관광재단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고창군민들이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택섭 고창군수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쇄신을 위해 어려운 자리에서 애써 주신 TF팀에 감사 드린다"며 "재단의 안정화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출된 혁신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회사 자랑하면 치킨·피자 쏩니다"

고창군, 근로자 문화의 날 운영 '간식 잡고, 행복 잡고' 행사

고창군과 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가 지역 재직근로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식 잡(JOB)고, 행복 잡(JOB)고'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 2번째로 진행되는 '간식 잡(JOB)고, 행복 잡(JOB)고'는 관내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관내 근로자가 고창군로컬JOB센터 홈페이지 '우리 회사 자랑 코너'를 통해 기업에 대한 사연이나 자랑을 남기면 그중 15개 사연을 선발해 자랑왕 5개 팀에게는 30만원 상당, 소개왕 10개 팀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치킨과 피자, 만두 등 간식을 일터로 직접 전달한다.

이영운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코로나 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내 근로자들과 소상공인에게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전북 동부권 특수학교 설립 탄력...장수군에 부지 매입 완료

계북면 원촌초 부지 일대에 설립 10학급 규모 2025년 3월 개교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전북 동부권 특수학교 설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장수군의 주민 협조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 교육청은 장수군 계북면 구 원촌초 폐교 부지 등 총 1만5366㎡(4656평)에 10학급 규모의(가칭)동부권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왔다. 도내 10개의 특수학교 대부분 전주나 중·북부 지

역에 위치해 동부권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주와 진안, 장수 등 동부권 지역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주, 남원 등 편도 1시간 이상을 통학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주변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2025년 3월 개교라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됐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역주민 설득작업에 나섰다. 지속적인 논의 끝에 최근 학교 설립에 필요한 필수 사유지 3467㎡(1050평) 매입 완료에 성공했다.

필수 사유지 매입이 완료되면서(가칭)동부권 특수학교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2년 설계 공모, 2023년부터 시설회사를 거쳐 2025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동부권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해당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양보와 협조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설계부터 완공까지 적극 소통하여 학교가 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숙박·목욕·세탁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10월11일까지 183개 업소 대상

정읍시가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와 시민건강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11일까지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한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하며 지난해는 아·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숙박업 97개소와 목욕장업 26개소, 세탁업 60개소 총 183개소가 평가 대상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전국 지자체 공표, 각종 인센티브 적용 등을 통해 영업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정읍시는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사위원을 구성하고 표준화된 평

가표에 따라 업소별 방문을 통해 조사·평가한다. 평가는 일반현황과 법적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영역에서 업종별 30여개 세부항목을 평가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업소(녹색), 우수업소(황색), 일반관리업소(백색) 등 3단계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결과는 11월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는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읍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영업장의 서비스 질적 향상 유도과 함께 정읍시에 대한 이미지 향상 효과까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